

## “한국 군함 보내라” 트럼프의 파병 청구서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위해 한·중·일·영·프 5국에 지원 요청  
靑 “미국과 소통해 신중히 판단”... 각국들 명분 없는 파병에 고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5개 국가에 긴장이 고조되는 호르무즈 해협에 미국을 도울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바라건대,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 이상 위협 받지 않도록 (이란 정부의) 인위적 제약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미국은 지난달 전쟁 시작 후, 주로 이란에서 수 백~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원거리 공격을 해왔는데,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을 개시할 때 지원해달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약 40km에 불과해 이란의 기뢰, 드론에 노출되기 쉬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주로 이용하는 국가를 묶어 다국적군을 편성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의 지명을 받은 국가들은 모두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반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느닷없이 국제법적으로 정당성이 부족하고 명분이 없는 전쟁을 벌여 여론이 좋지 않기에 최대한 신중한 모드로 움직이는 분위기다.

트럼프가 고른 5개국 중 미국의 동맹이 아닌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중국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은 소비 원유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며, 이 중 45%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호르무즈 통과 물동량의 37.7%가 중국으로 향한다.

하지만, 미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군사 행동에 힘을 보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15일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전력을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CNN 방송 질문에 “중국은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한다”며 “모든 당사국은 안정적인 해상 운송을 보장하는 책임이 있다”고 했다.

도쿄=류정 특파원, 베이징=이별찬 특파원  
박상기 기자 A3면에 계속, 기사 A2·14면



이란, 호르무즈 해협 수출길도 때렸다... 연기 치솟는 UAE 석유시설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하 석유 시설이 14일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아 불길과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아부다비 유전과 약 400km의 육상 송유관으로 연결된 푸자이라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우회해 하루 최대 18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핵심 통로다. 중단됐던 푸자이라하 석유 선적 작업은 15일 재개됐다.

## 1.2km 두고... 포항 남구는 회식, 복구는 운동

### 대한민국 건강 지도

#### ⑨ 서울대·본지, 지역 컨설팅 시작 의료·운동 인프라 따라 건강 격차

지난 3일 오후 7시 경북 포항시 남구 상대동 ‘젊음의 거리’는 근처 철강 산업 단지에서 쏟아져 나온 노동자들로 붐볐다. 대로변 양쪽으로 500m 넘게 이어진 식당·술집은 회식 손님으로 가득했다. 작업복 차림 젊은이도 많았다. 김모(44) 씨는 “일 끝나고 동료들과 한잔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젊은 골목엔 불과한 얼굴의 노동자들이 내뿜는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같은 시각 술집 거리에서 1.2km 떨어진 북구 양학동의 신도시 풍경은 달랐다. 포항역~효자역 간 4.3km 폐철로를 산책로·자전거길로 조성한 철길숲은 이른 저녁을 하고 산책 나온 주민들로 붐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전문가들이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났다. 야외 운동 기구장에서 중장년 20여 명이 근력 운동을 하고 있었다. 퇴근 후 매일 3시간씩 왕복 15km를 걷는다는 엄모(59)씨는 “젊은 친구들이 ‘나이 트(야간) 러닝’을 하는 모습을 구경하며 걸으면 시간이 잘 간다”고 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단장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252곳 1만명을 조사한 ‘한국 건강 지수’에서 포항시 북구는 30위, 남구는 42위를 기록했다. 두 곳 모두 상위권이었다.

그런데 인접한 남·북구는 일부 주요 지표에선 격차를 보였다. 산업 단지가 들어선 남구는 흡연율과 고위험음주율(최근 1년간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성은 7잔 이상, 여성은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마시는 비율) 등이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북구의 걷기 실천율은 60.26%(50위)로 전국 평균(50.64%)을 웃돌았다. 북구의 우울감 경험 비율은 4.45%로 전국 평균(6.61%)보다 낮았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과 조선일보의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건강 정책 추진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건강 컨설팅 프로젝트(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첫 지역으로 포항시를 선정했다. 컨설팅 전문가 패널과 본지 취재팀은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 포항을 찾아 54개 항목에 대해 포항시가 실시한 평가 등을 참고해 건강 개선책을 찾아냈다.

A6면에 계속  
포항=김도연·한영원·윤성우 기자

## 돌아온 이정현 “오세훈, 공천 참여를”

### 공관위원장 사퇴 이틀 만에 복귀 똥측 “당의 가시적 변화가 우선”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인 15일 업무에 복귀했다. 이 위원장은 복귀 일성으로 서울시장 공천 접수 마감일을 17일로 제시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천 절차에 참여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 시장은 앞서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며 두 차례 공천 마감일에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오 시장 측은 이날도 “(공천 신청보다) 당의 가시적인 변화가 우선”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공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장 대표는 지난 14일 경기도 모처에서 이 위원장과 배석

자 없이 만나 복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장 대표가 공천 전권을 맡아달라고 했다”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 역시 제가 지겠다”고 했다. ‘전권’에 대해 장 대표 측은 “이 위원장을 정치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 위원장의 직무 복귀를 알린 지 2시간 후 공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17일까지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천 접수에 나설 것”이라며 오 시장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 등을 요구하며 지난 8일, 12일 공천 접수를 하지 않았던 오 시장 측은 “현재로서 후보 등록을 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반면 장 대표 측은 “(혁신 선대위로) 당대표가 2선으로 퇴진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형원·이해인 기자 A4면에 계속

## “26만명이 몰려온다” BTS 광화문 공연 때 빌딩 31곳 출입 통제

그들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기념 서울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경찰과 서울시 등 관계 기관이 각종 사건·사고를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경찰 등은 공연이 열리는 21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 세계 ‘아미(BTS 팬)’를 비롯해 최대 26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문화 행사에 20만명 이상이 모이는 건 2002년, 2006년 월드컵 이후 처음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BTS 광화문 공연에 경찰관 6500여 명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매년 수십만 명이 몰리는 여의도 불꽃축제에 투입되는 경찰관이 300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행사 당일 현장에 투입되는 대응 인력은 경찰을 포함해 총 1만4700명 정도다. 경찰 말고도 서울시와 인근 구청,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3400명이, 행사 주최 측인 하이브에서 4800명이 각각 투입된다.

경찰은 2022년 이태원 헬러윈 참사 같은 압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행사에서 ‘스타디움형 인파 관리’ 방식을 채택했다. 공연장이 설치되는 광화문 광장 북단부터 지하철 시청역까지 약 1.2km 구간은 인파가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팬스를 둘러 핵심 지역(코어존)으로 구분한다. 여기에 동·서 31개 게이트(서쪽 15개, 동쪽 16개)를 만들어 이를 통해서만 핵심 지역으로 출입하게 할 계획이다. 경찰과 서울시는 KT 광화문빌딩·교보생명빌딩·한국프레스센터 등 광화문 광장 인근 건물 31곳의 옥상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 관리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안상현·김영우 기자 A8면에 계속

### 八面鋒

靑, 트럼프의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구’에 “신중 검토해 판단”. 일단 10일이 어떻게 하는지 본 뒤에?

대입 전형에 학폭 징계 반영하자 징계 취소 소송 급증. 인성은 전인교육으로 길러야 하는데 입시가 통제하는 세상.

이란, 중동내 대리세력 규합해 ‘제2전선’ 구축 모색. 그들은 ‘저항의 축’이 라지만 반대편에게는 ‘혐의 축’.

# 허리디스크 치료

## 추간공확장술

- ▶ 파열된 디스크 환자에 효과가 높아
- ▶ 추간공에 미세하게 얹혀있는 인대들을 키트로 절제하여 추간공을 넓히고 통상의 치료과정으로 염증유발물질을 척추관 밖으로 배출
- ▶ 신경가지(신경질)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여 통증을 완화
- ▶ 부분 마취 후 15분 정도의 시술로 치료

### Q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란 무엇인가요?

척추뼈(추체) 사이에 위치하여 지지와 완충의 역할을 하는 디스크(추간판)에 외부 충격 혹은 불안정한 자세에서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면, 추간판의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에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내부의 수핵이 빠져나오면서 신경을 누르고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를 통칭하는 질환명입니다

**탈출한 디스크의 정도**

**탈출한 디스크의 방향**

**발병 후 시간 경과**

### 추간공확장술로 어떻게 허리디스크를 치료하나요?

추간공 접근법을 통해 옆구리 방향에서 직접 추간공으로 들어가는 키트를 사용하여 추간공의 뒤쪽(등쪽) 공간에서 두꺼워진 황색인대와 추간공 외측 인대를 박리하여, 좁아지거나 막힌 추간공의 후방부(등쪽) 공간을 넓혀줍니다

추간공확장술은 이물질을 고집내에 물이 시원하게 빠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즉 추간공확장술로 유착된 인대를 떼어내 추간공을 넓혀 파열된 디스크로 인한 신경 압박을 줄이며, 염증 유발물질을 척추관 밖으로 배출하여 치료

### 추간공확장술을 시행할 수 있는 환자

1. 급성 및 만성 허리디스크 환자
2. 척추관 협착 환자
3. 척추관협착증, 수술성 질환 환자
4.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 환자
5. 고령 혹은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의 기저 질환으로 수술이 어려운 환자

※ 환자에 따라 수술적 치료 필요할 경우가 있음  
※ 시술 후 출혈, 감염이 있을 수 있음  
※ 시술 후 요추신경근 손상이 있을 수 있음  
※ 시술 후 염증이 발생할 수 있음

### 추간공확장술 시술과정

1. 척추 통증을 유발하는 좁아진 추간공
2. 인대는 신경유착이 진행된 추간공 상태
3. 인대는 시술 후 탄성적으로 늘어났던 추간공
4. 추간공확장술 후 염증치료를 위한 회복

**광혜병원**  
전화상담/안내 02-538-7111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86길 9(2호선 삼성역 2번 출구)